

# 문학번역의 전제: 번역가의 문법지식에 대한 토론문

류명우  
호남대 영문과 명예교수  
transyu@hanmail.net

1.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이 급속히 발전되어 기업에서나 개인적으로 점점 넓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직 문학번역(literary translation)만은 기계번역의 가능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분야이다. 이런 시점에서 문학번역의 기계화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보다 성실한 인간 번역(human translation)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역설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인간번역을 보다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불완전한 기계번역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현대 번역이론 가운데 실지 번역에 도움을 줄 만한 이론으로 라이스(Katarina Reiss)의 [텍스트 형식과 번역방법](*Texttype und Übersetzungsmethode*)을 들 수 있다. 번역은 텍스트가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가설 아래 텍스트를 정보성 텍스트(informative text), 실용형 텍스트(operative text), 그리고 창작성 텍스트(expressive text)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을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의미론적(semantic), 문법적(grammatical), 문체적(stylistic), 그리고 어휘적(lexical) 특징에서 찾고 있다. 번역방법(translation method)과 번역 비평(translation criticism)도 여기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번역된 텍스트가 번역어 독자들에게 어떤 기능(function)과 역할(purpose)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번역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압축된다. 문학텍스트는 두말할 필요 없이 창작형 텍스트에 속할 것이고 따라서 신문이나 교과서 같은 정보성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할 것이며 여기서 문학번역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겠다.

3. 한국어 시를 영역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본 논문의 취지에서 한국어 시를 '문법적으로 더욱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가설이다. '시도 언어로 제작되었고 언어는 문법의 지배를 받는 한 문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지는 새삼 돌아보아야 할 주장이다. 그동안 시 번역에서 "정서적 재창조"와 같은 다소 공허한 생각에 집착해서 번역가에 따라 다소 주관적인 번역물이 생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번역이란 과정이 주관적이지만 번역행위의 기준은 공통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4-1.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에서 몇 군데 수정한 시를 예로 들고 있다. 한국어 시에서 "아파트"와 "아프더라"에서 시점(視點)의 이동현상을 지적하고 (2K)에서 "흐름디다려" (3k)"오더라" 등에서 형태소 -더-의 어감과 역할을 번역문에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하에 (2R)에서 I also saw the waves of a stream, 을 추가하고 (3R)에서는 To my disappointment를 (4R)에서 I swear it was really beautiful....을 추가한 부분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고친 시가 읽기에 훨씬 쉬워지고 시인의 의도가 분명해진다는 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술문의 보충이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해준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보더라도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요즈음 흔히 쓰는 말로 적절한 <post editing>이라 할 수 있겠다.

4-2. 2.2 조사에서 {-은/는}과 {-이/가}는 주제와 주격조사인데 이들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를 지적하여 번역에 반영코자 한 것은 한영번역에서 조사의 기능을 흔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적이다. '<풀이 눕는다>'와 '<풀은 눕고>'의 의미상의 차이를 분석한 것은 대단히 정밀한 원문 읽기로서 번역이 대부분 지나쳐왔다고 생각한다.

4-3. 2.2.2 {-을/를} 타동사와 함께 쓰이는 목적격조사가 자동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동태적인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번역 예문을 제시하였다. '스러져가는 푸른 초를 기대고'를 *leans against* 대신 *casts its flickering shadow*로 번역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흔히 쓰는 표현 "창에 기대고"를 시에서 "창을 기대고"로 표현한 점을 밝혀내어 번역에 반영한 점은 오랜 시간의 연구가 필요했으리라 생각한다.

4-4. 2.3 복수 11a) '사과'를 무표형복수로 11b) '어서들'을 간접복수로 11c)'집집마다'를 첩어복수 등으로 읽어 내고 있다. 이는 흔히 한국어에서 수 개념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귀중한 지적이라하겠다. 영문법에서는 단수 복수의 구별이 문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면 한국어의 수 개념은 그보다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4-5. (18k)산유화에서 "寧邊에 藥山"을 *from Mt. Yaksan in Yeongbyeon*으로 고친 것은 영어의 관행으로 보아 타당한 교정에 속한다. 영어의 지명 표기법에 맞추어야 큰 곳과 작은 곳이 구별될 것이다.

지면상 모두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타당한 사례를 들어서 문법을 정밀하게 적용해서 읽고 번역해야 한다는 초지일관된 논지는 한영(韓英)시번역에 중요한 시사점(示唆點)을 제공하고 실제 번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5. 시가 대표적인 창작성 텍스트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그 창작의 도구인 언어의 특성을 많이 함축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처럼 문법적 원문 읽기를 더 깊고 정밀하게 할 필요를 제기한 논문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만 문법이 교과서적인 것을 넘어서서 언중이 현재 널리 쓰는 경향에도 귀 기울이는 방향의 연구도 있음직하다고 제언하고 싶다.